

계열화사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 영향 평가

1. 산업 경쟁력 강화

가. 육계

2012년 하림의 육계 kg당 생산비는 도계장 도착도 기준 1,556원, 미국은 1,179원(Allen사)으로 우리가 kg당 377원 높고 우리 육계 원가가 미국의 75%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과거 kg당 500원에 달했던 원가 갭을 상당부분 축소한 것으로 우리 육계산업의 꾸준한 생산성 향상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미국 육계 원가 대

〈표 1〉 하림과 Allen사의 비교

Items	Allen	[Allen]1,130원/\$	Harim	Gap
Age 사육일령	43.4	43.4	32.9	-10.4
Bwt/kg 평균중량	2.433	2.433	1.610	-0.823
Livability 육성률	96.85%	96.85%	96.18%	-0.67%
FCR 사료요구률	1.833	1.833	1.640	-0.193
cFCR_1.5kg 1.5kg 보정 사료요구률	1.553	1.553	1.607	0.054
ADG/g 일당증체량	56.09	56.09	48.89	-7.20
E.P.I 생산지수	296.40	296.40	286.71	-9.69
Feed Cost/kg 사료단가/kg	0.4022	454.49	518.90	64.41
Chick Cost/chicks 병아리단가/수	0.3069	346.84	485.88	139.04
Feed/\$/kg 사료원가(계육/kg)	0.7372	832.99	851.12	18.13
Chick/\$/kg 병아리원가(계육/kg)	0.1303	147.20	313.72	166.52
Grower Pay/\$/kg 사육비	0.1270	143.56	299.73	156.17
LC3(Haulig Included) 도착도	1.0432	1,178.81	1,556.36	37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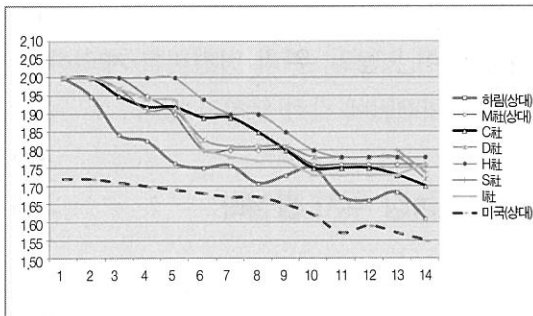


정 문 성 전무
(주)하림 1본부

계열화사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 영향 평가

〈표 2〉 주요 계열회사 연도별 FCR(사료요구율) 트렌드

구분	하림(상대)	M社(상대)	C社(상대)	D社	H社	S社	ㄴ社	미국(상대)
1999	2.00	2.00	2.00	2.00	2.00		2.00	1.72
2000	1.95	2.00	2.00	2.00	2.00		2.00	1.72
2001	1.84	2.00	1.95	1.97	2.00		1.97	1.71
2002	1.83	1.95	1.92	1.91	2.00		1.94	1.70
2003	1.76	1.90	1.92	1.91	2.00		1.94	1.69
2004	1.75	1.80	1.89	1.83	1.94		1.80	1.68
2005	1.76	1.80	1.89	1.81	1.90		1.78	1.67
2006	1.71	1.80	1.85	1.81	1.90		1.77	1.67
2007	1.73	1.80	1.80	1.81	1.85		1.77	1.65
2008	1.75	1.76	1.75	1.78	1.80		1.73	1.62
2009	1.67	1.76	1.75	1.78	1.78		1.73	1.57
2010	1.66	1.76	1.75	1.78	1.78		1.73	1.59
2011	1.68	1.76	1.73	1.78	1.78	1.80	1.73	1.57
2012	1.61	1.76	1.70	1.72	1.78	1.74	1.76	1.55



※출처 : NATIONAL CHICKEN COUNCIL, COBB

비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병아리 166원, 사육비 156원으로 두 항목이 전체 값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사육비 경우 kg당 하림 300원, 미국 144원이며 여기에서 사육경비를 제외한 순 사육비는 하림이 183원으로 미국 109원 보다 74원 높은 수준이다.

하림에서 2000년 이후 주도한 생산성 향상 활동은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1999년 당시 FCR 2.00에서 2012년 1.61로 0.39 포인트가 개선되었다. 이는 육계 kg당 202원의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이다. 현재 미국의 FCR은 1.55 수준으로 우리 육계산업의 경우 수년 이내에 미국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종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병아리 원가를 현재보다 약 100원 절감하게 되면 미국 원가의 80%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값 20%는 수입 냉동 닭고기가 가질 수 없는 품질경쟁력으로 소비자 입맛을 잡아 우리 닭고기의 최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하림의 전략이다.

2012년 기준 축종별 자급률이 소 48%, 돼지 69%인데 비해 닭은 76%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역시 90% 이상 계열화체계를 구축한

육계업계가 경쟁국에 근접하는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나.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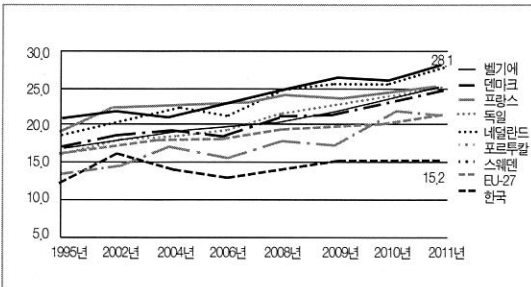
반면 아직 계열화가 성숙하지 못한 국내 양돈산업의 경우 사육부문의 생산성이 국제수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MSY는 15두 수준이나 세계 최고 수준인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MSY는 28두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여년 동안 MSY가 거의 변화가 없는데 비해 계열화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이들 나라 경우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최근 국내 양돈업계의 어려움은 수입산 돈육의 국내 시장 잠식에 따른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표 3〉 EU 주요국 VS 우리나라 양돈 생산성 비교(MSY)



※자료출처 : EUROSTAT, BPEX, 농림축산식품부

2. 계열농가 소득

하림이 계열농가에 지급하는 사육비가 2003년 평균 54백만원에서 2012년 151백만원으로 10년 동안 2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계사 평당 사육비는 6만5천원에서 15만4천원으로 237% 상승했다. 닭 마리당 사육비 역시 2003년 347원에서 2012년 464원으로 117원 상승했다. 이처럼 농가 사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회사 주도로 계사 가동률을 올려 단위 면적당 닭 생산량 증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사육경비를 제외한 마리당 순 소득이 292원, 관리 인건비를 제외한 순 소득은 250원에 각각 달하고 있다.

3. 육계농장 투자 활성화

지난해부터 전 축산업계에 불어닥친 불황으로 육계 계열회사는 물론 계열화사업이 정착되지 않은 소, 돼지 사육농가들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러나 거의 유일하게 육계 사육농가는 불황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육계 사육농가들의 지속적인 소득 향상과 특히 투자 안정성이 알려지면서 육계농장에 대한 신규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림의 경우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6년 동안 97농가에서 280동의

계열화사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 영향 평가

무창계사가 신축되었으며 투자비는 1150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37농가에서 91동의 무창계사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투자비는 5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신규 참여자들 중에는 한우, 과수 농가는 물론 귀농자, 공무원, 대기업 CEO를 지낸 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육계 사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농축산업계 중 가장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육계농장 사업이다. 현재 양계장 허가가 가능한 부지의 경우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육계농장 투자 수익률은 평균 15%에 달하고 있으며 관리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률이 1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의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 5~6%의 두배에 달하는 수익률이다.

다만 기존 농가 중 사육환경이 열악한 하우스형 계사(D급)를 소유하고 있는 하위 5% 농가의 경우 연간 평균 사육비가 53백만원으로 A급 농가 195백만원의 27%에 불과하여 이들 농가는 자체사육 또는 계약사육을 해도 불만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림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육환경이 열악한 C, D급 농가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고수익이 보장되는 A급 농가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4. 계열회사 수익

계열회사의 수익률을 보면 하림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평균 영업이익률이 2.6%로 제

〈표 4〉 하림 계열농가 연도별 무창계사 신축 투자 현황

2007~2012년								(단위 : 천원)
구분	농가수	규모	동수	공사비	하림용자	하림비율	자부담	비고
07년	17	930	50	13,829,392	1,050,000	8%	8,695,392	
08년	14	1,210	39	14,340,047	2,490,000	17%	8,950,047	농가에서 직접받은 정책자금 배정금액은 자부담금에 포함
09년	4	303	14	4,220,000	-	0%	1,320,000	
10년	10	680	24	9,647,143	3,120,000	32%	3,927,143	
11년	21	2,053	61	24,947,667	12,967,536	52%	16,348,507	11년1월부터 하림(에코)자금 실행
12년	31	3,108	91	47,800,000	10,871,000	23%	34,029,000	
계	97	8,284	279	114,784,249	30,498,536	27%	73,270,089	
2013년 3월 현재 진행								(단위 : 천원)
구분	농가수	규모	동수	공사비	하림용자	하림비율	자부담	비고
13년	37	3,544	91	54,523,000	10,000,000	18%	41,623,000	

특집 ▶ 육계 계열회사의 현주소와 올바른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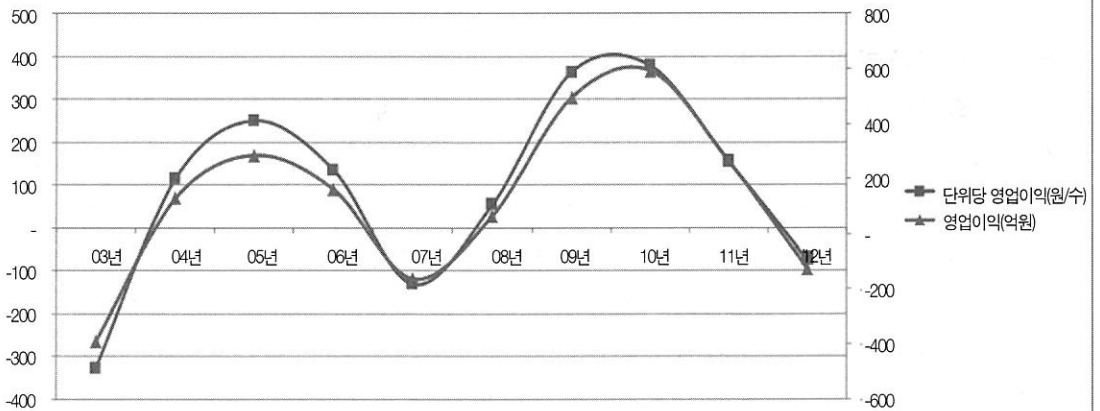
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 5.57%(2011년)의 절반 이하,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 4.07%(2011년)의 6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3개년은 영업이익률 적자를 기록했으며 10년 평균 마리당 수익이 98원에 달하고 있다. 계열회사의 영업이익률 2.6%는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등급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앞에서 제시한 계열농가의 관리 인건비를 제외한 마리당 순 소득 250원은 계열회사의 마리당 수익 98원에 비해 2.5배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육계 계열회사는 일반적으로 병아리, 사료, 닭고기 등 3가지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

〈표 5〉 하림의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03~12년)
매출액	억 원	3,263	3,853	3,655	3,577	3,614	4,453	5,752	6,577	7,815	7,476	50,034
영업이익	억 원	-391	129	286	162	-163	66	495	593	265	-126	1,316
영업이익률	%	-12.0%	3.3%	7.8%	4.5%	-4.5%	1.5%	8.6%	9.0%	3.7%	-1.7%	2.6%
단위당 영업이익	원/수	-328	115	250	135	-132	54	363	379	156	-74	98

※ 영업이익 공시기준
 2011년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5.57%
 2011년 식품업 평균 영업이익률 4.07%

하고 있다. 이중 병아리, 사료는 계열농가에 원가에 공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계열회사는 최종 상품인 닭고기 판매를 통하여 일부 이윤을 얻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계열업체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사육농가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5. 계열농가 소작농 아닌 상생 파트너

현재까지도 일부에서 계약사육이 과거 소작농과 같다거나 관리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계열화사업은 농가는 사육을 전담하고 회사는 수집, 가공, 유통 업무를 전담하는 상생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았다. 최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논란과 관련해서도 육계 계열화사업의 농가와 회사의 역할분담은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농가와 회사는 상호 노력하여 생산성 향상을 시 상생하고 반대 경우 공동 몰락하는 동반자 관계이다.

농가는 자기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독립 경영체로서 다수의 계열업체 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더 많은 수익을 주는 회사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오히려 계열회사 측에서 농가이탈을 방지하고 우

수농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좋은 거래조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원자재 품질 관리

병아리 사료 품질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높다. 하림은 업계 처음으로 지난 2007년 계열농가에서 사육과정 중 각종 사고나 질병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사육 변상금을 100% 탕감하고 나아가 최소사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원자재 품질에 대한 1차적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한 것으로 원자재 품질 저하로 생산성 하락시 곧바로 회사 육계 수취 가격이 상승하도록 정산 시스템이 되어 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농가에 변상금을 물릴 수 없으므로 회사 스스로 원자재 품질관리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국내 5대 메이저 육계 계열회사 중 하림, 올품, 체리부로, 마니커 등 4개사에서 변상금 탕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계열회사의 경우 현재까지도 병아리, 사료 품질 불량에 의하여 변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농가에 부담시키고 있어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